

김수로왕[金首露王]

금관가야의 시조

42년 ~ 199년



김수로왕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김수로왕은 금관가야(金官伽倻)의 건국 시조로 알려져 있다. 수로왕 설화를 통해 그가 이주민 계열로서 김해 지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금관가야를 건국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통치자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 『삼국유사』 가락국에 보이는 수로왕 설화

금관가야라고도 하는 김해 가락국(駕洛國, 혹은 伽耶國)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수로왕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전하는 내용이 가장 자세하다. 수로왕의 탄생과 가락국의 건국에 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해 지역에서 9간이 사람들을 이끌고 살고 있었는데,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42년) 북쪽의 구지(龜旨)에서 하늘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니 하늘에서 자줏빛 줄에 묶인 금상자가 내려왔다. 금상자 안에는 황금 알 6개가 있었는데, 다음날 여섯 알은 여섯 남자아이가로 변해 있었다. 이에 이들을 높여 공경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인 수로(首露)가 대가락(大駕洛)의 왕이 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남아들도 각각 다섯 가야의 왕이 되었다. [관련사료](#) 수로왕이 즉위한 후, 탈해가 와서 왕위를 빼앗고자 하였으나 신통력 대결을 통해 왕위를 굳게 지켰다. [관련사료](#) 48년에는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許黃玉)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으며, 이후 왕비와 함께 선정을 베풀다 189년에 사망하였다. [관련사료](#)

그러나 정리된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가락국기는 건국 시조로서 수로왕의 신이한 탄생 과정과 그의 신통력, 하늘이 맺어준 왕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사실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또한 가락국기 자체도 고려 문종대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신뢰할 수는 없다. 다만 9간의 무리가 구지봉에 모여 구지가를 부르자 하늘에서 금빛 알 6개가 내려오고, 이 알이 남자아이가로 변하자 9간이 이들 중 한명을 추대하여 수로왕으로 삼았다는 줄거리에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수로왕보다 9간의 이름과 활동이 먼저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수로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김해 지역의 유력 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은 수로왕이 9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 이주민 계열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9간들의 추대에 의해